

제8회 도서관 주간행사 계획

1. 목 적

독서가 국민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도서관이 국민의 교육과 사회발전에 주는 작용이 무엇인가를 일반국민에게 인식시킴으로서 도서관 사업을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2. 기 간

1972. 4. 12~18(1주일간)

3. 주관 : 한국도서관협회

4. 후원 : 문교부 · 내무부 · 문화공보부

5. 협찬 : 각신문사 및 방송국

6. 주관처의 실시사항

가) 강연회

1) 일시 : 1972년 4월 14일 오후 2시

2) 장소 :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시청각실)

3) 연제 및 연사

ㄱ) 교육과 도서관

이봉순(이화여대도서관장)

ㄴ) 세계 도서의 해와 도서관

김경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나) 신문좌담회

주제 : 사회의 전문화와 도서관

참석 : 강주진(한국도서관협회장)

이상규(국립중앙도서관장)

(신문사논설위원)

일시 : 1972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각실

다) 라디오 좌담회

주제 : 시민생활과 도서관

참석자 : 이재철(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장일세(국립중앙도서관 지도협력과장)

정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일시 : 1972년 4월 12일~18일중

장소 : 각라디오방송국

라) TV좌담회

주제 : 세계 도서의 해와 도서관

참석자 : 추후결정

일시 : 동기간중

장소 : 각TV방송국

7. 1일 관장제 실시

일시 : 1972년 4월 12일(1일간)

장소 : 각급 도서관

실시방법 : 각급 도서관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급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가급적 저명인사를 일일관장으로 추대하여 동 주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이 행사는 지난 제18차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권장사항임.

보도 : 신문사 · 방송국(라디오 · TV) 기타 매스컴을 통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시켜 도서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한다.

8. 새마을 운동에 따른 행사

自助, 自立, 協同을 기반으로 한 새마을운동이 농어촌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데 있느니만치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이고 바람직하게 활용시킴으로서 지역국민의 정신자원을 개발하여 새 마을 정신을 고취시켜 내적으로 충실하고 알찬 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가) 도서관 자료의 활용

1) 공동도서관은 소장한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모색하고 새 마을운동을 위한 지적자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2)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자료를 활용시킴은 물론 학생을 중심으로한 학부형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그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적극 지

원 참여한다.

나) 자모독서회의 조직 및 운영

각급 학교 도서관은 새마을운동을 내면적으로 지원하는 일환으로 자모독서회를 조직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게 한다.

1) 조직

- a) 학급별로 몇개의(2,3개구름)구름으로 독서회를 조직하되 이 구름에는 학부형을 포함시켜 학생과 부형이 같이 독서하도록 연결시킨다.
- b) 독서회원중의 몇몇(부형)으로 독서위원회(학급단위)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독서경향 토의, 도서선택, 독서관장 등 독서회 운영의 전반을 자치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

2) 운영

- a) 도서를 학생이 학교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하여 자기 가정의 부모(또는 기타 가족)에게 전달하고 아울러 학생과 같이 읽고, 다 읽은 책은 역시 학생이 반납조처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대출하여 이를 연속적으로 순회시켜 운영한다.
- b) 독서위원회를 월 1~2회 정도 소집하여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 토의와 비평 및 다음에 읽을 책의 선택 등을 토의하고 위원회 운영의 전반을 협의한다.

3) 효과

- a) 학생과 부형이 서로 독서의 의욕을 자극하여 독서하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한다.
- b) 학부형들이 자녀교육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학교당국과 학부형이 혼연 일체가

되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다.

- c) 학생들의 과외지도 및 공동생활, 협동생활, 독서생활, 자율학습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 d) 독서의 기회를 점차 확대시켜 잠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 e) 지역사회의 주민과 학교가 일체감으로 단합하여 自助, 自立, 協同할 수 있는 새마을 건설을 스스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9. 관계기관의 실시사항

가) 시교도육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도 교육위원회는 본 주간을 뜻있게 치룰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세워서관하에 시달하고 실시과정을 지도한다.

나) 언론기관

일간신문사 방송국은 국민에게 본 주간의 의의를 계몽하는데 적극 협조토록 한다.

다) 각급학교

시도교육위원회의 지시를 토대로하여 학생및 그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킬수 있는 행사를 실시한다.

라) 각급도서관(공공·대학·학교·특수도서관)

- 1) 본 주간중 도서관 무료 개방
- 2)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도서관 개방(초·중·고교)
- 3) 강연회, 웅변대회, 좌담회(특히 지역내 기관장 초청좌담회)
- 4) 도서 및 도서관 사진 전시회
- 5) "도서관의 밤" 등 축제
- 6) 현수막게양, 포스터, 표어모집제작 게시 등

專門職 意識

司書職의 專門性이 진저하게 논의되고 있다. 司書가 醫師나 法官들과 마찬가지로 專門職이 될 수 있는 爭點에 대해 斯界의 主張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론이다. 類似 職種인 教師職群에서도 專門職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나 일부 研究에서는 資格試驗 없이 有資格者가 量産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社會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수록 自衛意識에서 더욱 專門職이란 명칭에 애착을 느끼고, 곧잘 外國의 경우를 授用한다. 그런데 美國의 250餘 職群의 평균 보수를 조사한 한 報告에 의하면 物理學者가 第1位이고, 司書는 거의 中間順位로서 겨우 運轉士 바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이다.

外部에서 司書職을 얼마나 專門職으로 알아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內部에서 그만큼 資質을 갖추고 있느냐를 反省하고 革新하는 일이 急先務라 생각된다.

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自身은, 非專門職스러운 懷疑와 挫折感에 빠져있으면서 그 反作用으로 일반 圖書館 利用者들에게는 專門職 意識의 高姿勢로서 非奉仕의이거나 消極의 奉仕에 머무르는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圖書館이 綜合社會教育機關이 되기 위해서는 潛在讀者의 開發 등 利用對象層에 대한 能動的인 봉사과 간격 없는 친밀감을 전제로 한다. 日本의 公民館이 公同도서관보다 앞선 社會施設로 급격히 발전한 理由에 대해 古木弘造 교수(名古屋大學)는, 司書의 專門職意識이 資料整理, 閱覽 등 기술적인 업무에 치우치고, 도서관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특정 社會階層만을 대상으로 消極的인 奉仕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司書의 專門職 意識은 자신이 內實과 證지를 지니는 경우에 한해 讀者에 대한 바람직한 奉仕姿勢로 昇華될 수 있으나, 挫折과 회의 속에서는 이를 빙자한 非奉仕의 姿勢로 나타나지 않을런지 생각해 볼 일이다. (庸)

